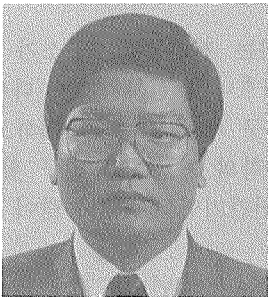


'91 통신정책 방향



천 조 운
체신부 통신기획과장

1. 머리말

'70년대부터 컴퓨터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각종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쉽게 수집·가공·저장·처리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를 빠르게 값싸게, 그리고 멀리 전달할 수 있는 전기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들 양자가 상호 결합하게 됨에 따라 정보의 이용이 손쉬워지고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신과 컴퓨터기술의 혁신과 융합으로 발전된 정보통신산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지금의 산업사회를 정보사회로 변모시키는 사회변동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산업은 전신, 전화 등의 통신기술에 컴퓨터, 반도체, S/W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성장한 산업으로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기반산업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산업은 앞으로 고도성장이 예측되는 자원절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첨단기술산업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있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수 수단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으로서도 중점육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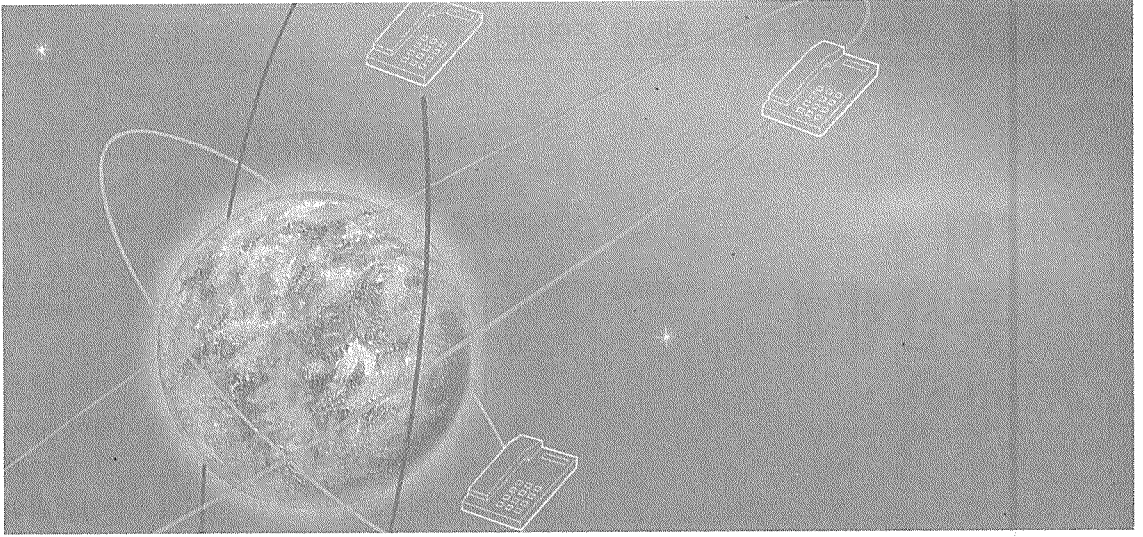
그간 우리나라는 '90년말 현재 전화 1,500만 회선을 공급함으로써 시설면에서는 세계9위에 진입하여 기본통신부문인 전화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나, 데이터통신 등 고도통신이 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미만으로서 이 분야는 기술, 수요, 서비스 측면에서 초보단계에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보통신의 고도화를 통한 선진통신의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하여 2000년대까지는 “7대 통신선진국” 수준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통신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2. '91년도 역점 추진계획

1)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화 촉진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현재수준은 외국기술의 모방, 개발단계에서 소화, 흡수단계로 진전되고 있으나 앞으로 기술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해서 원천기술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통신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단계이다.

앞으로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공가능성 있는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개발함으로써 선진 기초기술 및 생산기술을 확보할 계획인 바 이를 위해 개발비가 막대하거나 위험부담 때문에 민간이 개발을 꺼려하는 기초기술과 대형 복합기술은 정부가 개발을 주도하여 나아갈 것이다.

'91년에는 지난해보다 38% 증가된 1,840억원의 기술개발비를 투자하여

- 10만회선급 대용량 전전자교환기(TDX-10)의 상용화
- 초고집적 반도체인 16M DRAM 실용시제품 개발과 64M DRAM 기초 공정기술 개발
- 행정전산망 주전산기(Ⅱ) 실용시제품 개발완료 및 상용화
- 고선명 TV(HDTV) 전송기술개발
-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개발 등

주요 핵심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 정보통신사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교환기, 반도체 컴퓨터 등 정보통신 핵심기술을 제조업체에 전수하고, 제조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해외특허정보,

기술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정보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자통신연구소가 기술개발을 주도하여 왔으나 통신사업자가 다원화, 전문화되고 자체연구 개발조직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기초기술 연구 활성화 육구가 증대되고 민간기업의 연구능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2000년대를 바라본 장기연구개발 추진체제를 재정립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연구개발 투자의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통신분야의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정보통신 발전방향에 관한 전문가 그룹 의견을 수렴하며 관·학간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술단체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는 지원규모를 25억원으로 늘려('90년 20억원) 사회·인문과학, 이·공학분야 관련 학술단체와 국·공립 종합대학교, 정보통신관련학과 설치대학(교)을 대상으로 지원해 나아갈 예정이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육성

먼저 대외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국내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통신공사의 정부출자

배당금 정보통신진흥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300억원을 조성한데 이어 금년에도 300억원을 확보하고 정보통신진흥법 등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통신기기 및 부품, 통신용 S/W 개발업체, 정보통신사업체 등 정보통신산업의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유지·보수공사 전문업인 전기통신공사업을 전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신공사업 육성정책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며, 우선 금년에는 일반공사업 변경허가를 실시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92년부터 허가시행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산전자교화기(TDX)의 수출촉진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우선 지원되도록 추진하고 수출대상국 인사초빙, 기술훈련 제공 등을 통해 수출환경을 조성하며 과다경쟁방지를 위한 수출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금년에도 체신부, 통신공사, 전자통신연구소 합동으로 기술개발능력, 경영능력이 건실하여 지원효과가 기대 되는 통신용 기기, 부품 및 S/W업체 중에서 10~15개 중소기업체를 발굴하여 자금지원, 판로알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체를 적극 육성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그리고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기술수준이 낮은 전기통신 용역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용역업체 중 우수용역업체를 선정·지원함으로써 통신용역기술의 고도화를 유도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금년에는 보유인력 장비 및 수주실적과 기술수준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술평가제도를 마련하고 평가결과 성적이 양호한 업체를 우수용역 업체로 선정하여 내년부터 정보통신진흥자금을 활용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용역시장의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 S/W산업 지원을 위해 통신공사 등과 같은 관련기관의 S/W개발계획을 사전에 예보토록 하는 수요예보제를 실시하고 부가가치통신 사업의 조기활성을 위해 금년상반기중에는 국내 VAN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해서 단순회선재판매와 단순정보전송서비스도 허용하고, 대외개방에 앞서 국제VAN사업도 국내 사업자에게 먼저 허용할 방침이며 아울러 용산 전사상가 S/W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S/W판매기능도 적극 지원하고, 통신공사에 S/W전문 연구소를 설립해서 민간기업이 자체개발하기 어려운 S/W 관련 기반기술을 확보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3) 통신사업의 경쟁체제확립 및 활성화

지난해 통신사업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국제전화와 정보통신부문에 통신공사와 데이터통신(주)의 복수경쟁을 도입하고 부가통신분야는 다수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통신(주)는 금년중에 국제관문국용 교환기를 도입하여 설치하고, 기존 시내·시의 통신망과 접속하는 등의 서비스제공 준비를 갖추고, 빠르면 금년말에 국제전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전기통신기본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경쟁체제에 적합하도록 전면 정비하여 통신사업자별로 사업의 지정, 허가, 등록기준을 제정함으로써 '92년 후반부터는 장거리전화분야의 복수경쟁도입을 추진하며 이동통신분야도 차량전화, 무선호출 등 서비스별로 신규사업자를 허가하여 복수경쟁체제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그리고 통신사업경쟁에 따른 공정한 경쟁환경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통산사업자간 통신망 상호접속제도를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와 통신망의 다양화에 따른 공정한 번호관리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경쟁시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연구개발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통신 사업자에게는 첨단기술 연구개발 의무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중통신전담사업자를 설립하여 공중유·무선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공중지역내의 공중통신시스템을 현대화하여 공중통신서비스를 개선하며, 부두에 정박 또는 항해중인 선박과 육지에 있는 해운·항만 관련기관 또는 일반가입자간에 제공되는 통신인 항만통신을 현

대화하기 위해 '91. 12월 부산항만 지역을 연안 선박 자동무선전화서비스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통신의 발전혜택을 어민에게도 골고루 분배하고 항만전화(주)의 자립기반과 경영구조도 개선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4) 이용자보호강화 및 제도정비

지난 '80년대 통신시설의 양적인 확충에 치중한 나머지 다소 소홀히 했던 이용자 중심의 통신정책을 시행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 먼저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이용약관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사업자의 면책규정을 삭제하며 이해관계인, 소비자보호원, 여론조사 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이용약관을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보상기준의 제정을 의무화 해 나아갈 계획이며, 시내외간 요금격차를 완화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외거리단계를 축소(4단계→3단계)하고 시외요금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사업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신사업자간의 통일회계제도를 정립하여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 통신사업자간 서비스 형태별로 회계정보가 같은 기준하에서 작성될 수 있도록 통일회계 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인 요금결정을 위한 서비스별 원가계산제도를 정립하고 사업자별, 업종별 회계보고제도를 확립하겠다.

5) 통신의 국제화 촉진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전기통신의 개방화 자유화 등 통신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통신관련 국제협력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UR통신서비스협상 및 한·미통신회담에 적극 대처하고 각종 국제기구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로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아가겠다. 우리나라 통신발전 정도에 상응한 국제활동 전개로 국제사회에서의 아국위상을 제고시키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용이하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아갈 예정이다.

먼저 '90. 12월 브뤼셀 각료회의시 협상기한이 금년 초까지 연장된 UR서비스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서비스시장 자유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UR통신협상을 통해 한·미간 통신현안을 동시에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일반협정 및 통신분야 부속서 제정협상과 양허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 통신산업 육성책을 마련하여 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과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육성 등에 만전을 기하여 나아가겠다.

아울러,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최대 규모의 전기통신박람회인 TELECOM '91에 참가('91. 10)하여 한국관설치·운영, 한국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TDX, 광통신장비 등 첨단장비를 전시·홍보하여 아국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 밖에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관리아사회, APT(아·태전기통신협의체) 임시총회 및 관련위원회, APEC(아·태각료회의) 등 통신관련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통신기술 인력훈련 지원('91년 100명)과 무상기술 용역사업 지원 등 개도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TDX 등 통신기수출지원 및 선로공사 등 통신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9위권의 통신선진국에 상응한 국제활동을 전개해 나아가겠다.

국제교역의 증대와 소련, 중국, 동구 등 북방국가와의 관계개선에 따라 급증하는 무역·산업계의 국제통신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울과 부산에 국제관문국 교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위성지구국 시설을 증설하며 그리고 해저광케이블 건설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전송로를 다원화하고 확충할 계획

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 무역·통신의 중심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3. 맺는말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통신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으며 통신관련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통신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먼저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통신서비스 교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경쟁을 통하여 통신사업의 발전을 가속화 시키기 위하여 국제전화사업과 정보통신사업에 경쟁을 도입하였다.

또한, 통신요금제도를 개선하고 통신요금 수준을 대폭 인하하여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정보통신 이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PC단말기 1,000만대 보급 계획의 일환으로 국민학교 교육용 컴퓨터의 보급도 시작하였으며,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대북방 통신교류 증진,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추진 등 통신분야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통신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변화가 더욱 빠르고 폭넓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80년대에 이룩한 통신부문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은 정책을 꾸준히 수립 시행해 나아가는 한편,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학·연·관 등의 모든 통신관련분야의 종사자들이 정보통신진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합심단결하여 범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